

【복심포지엄】

과학철학 24권 3호 (2021) pp. 91-125

## 단순 반사실적 의존성 “때문에” 이론과 설명 이론

이재호\*

선우환 교수(이하 선우환)는 최근에 출판된 책에서 “때문에”的 의미에 대한 흥미로운 철학적 연구를 제시했다. 필자는 그의 연구가 철학적인 주목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의 이론이 훤히 “설명 이론”이라고 불리는 철학적 영역에서 출중한 토론의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필자는 여기서의 작업이 선우환의 작업과 관련한 철학계의 토론을 활성화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논문을 쓴다.

【주요어】 설명, 때문에, 선우환, 반사실적 의존성

---

\* 중앙대학교 부교수, jaeho.jaeho@gmail.com

## 1. 설명 이론의 지형

철학자들은 과거부터 “P 때문에 Q가 발생했다”와 같은 형식의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왔다. 선우환도 지적하듯이, 혼히 아리스토텔레스의 ‘4 원인(aitia)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원인(cause)에 대한 이론이기 보다는 ‘까닭’에 관한 이론이며 따라서 이 이론은 ‘때문에(because)’에 관한 이론으로 보다 적절하게 생각될 수 있다.<sup>1)</sup> 그러나 이런 생각은 종종 다른 형태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프리랜드(Cynthia Freelan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 학자들은 사실상 만장 일치로 4 원인론이 설명 이론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줄리어스 모라브직은 이 이론이 ‘적절하게 이해될 경우’, ‘적절한 설명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다’라고 말하며 줄리아 안네스는 비슷하게 ‘*aitia*를 원인(cause)으로 생각하지 않고 설명, 즉 ‘때문에(because)’로 취급하게 된 것은 대단한 발전이다’라고 지적 한다.<sup>2)</sup>

프리랜드의 설명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가 *aitia*를 원인이 아니라 ‘때문에’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의 결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4 원인론을 설명 이론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이 “때문에”에 관한 이론을 (이후로 이를 “때문에” 이론”이라고 부를 것이다.) 설명 이론으로 간주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서 선우환은 그의 책 전반에 걸쳐 ‘때문에’ 이론과 설명 이론을 구분할 것을 명확히 한다.<sup>3)</sup> 앞으로 명확해지겠지만 필자는 선우환의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때문에’ 이론이 설명 이론의 범주 하에서 다뤄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드러

1) 선우환 (2020), p. 25.

2) Freeland (1991), p. 49.

3) 선우환의 이런 생각이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곳은 그의 책 1장 4절이다.

날 다른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론을 전통적인 **설명 이론**들과 비교하지 않고서 그 성격과 의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까지 설명 이론이 분석 철학적 전통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매우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결과로 주어진 **설명 이론**의 지형도 속에서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한다.

필자는 기존의 설명 이론에는 다음의 세 개의 구분되는 주된 접근법이 존재해왔었다고 생각한다.<sup>4)</sup>

- 충분성 접근
- 의존성 접근
- 과정 연결 접근

충분성 접근에 따르면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피설명항에 대한 어떤 종류의 충분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sup>5)</sup> 분석 철학적 전통 속에서 설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한 힘펠의 연역 법칙(D-N) 모델은 아마도 충분성 접근을 채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설명 이론일 것이다(Hempel 1948). D-N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어떤 현상의 발생을 설명하는 것은 그 (피설명항) 현상을 어떤 자연 법칙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이 자연 법칙을 포함하는 설명항은 피설명항에 대해서 충분조건이 된다. 물론 힘펠은 D-N 모델 외에도 귀납 통계적(I-S) 모델을 제시하며 이 모델 하에서 설명항은 피설명항에 대

4) 필자가 설명 이론을 반드시 이렇게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분류법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단 하나의 ‘옳은’ 분류법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축구 선수를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로 구분하는 것이 공격수와 수비수로 분류하는 것보다 더 옳은 것이 아니듯이 설명 이론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의 문제는 그 분류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크게 의존한다. 설명 이론에 대한 전혀 다른 분류 방식의 예는 Salmon (1984), Ch.4 참조.

5) 선우환은 “충분성 접근”이라는 표현 대신 “충분조건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선우환 2020, p. 27).

해서 충분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햄펠의 전반적인 기획이 주어질 경우, 햄펠이 D-N 설명이 보다 이상적인 형태의 설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햄펠의 모든 설명 모델을 총괄하는 정신은, W. 새먼이 강조하듯이, 설명은 피설명항에 대한 법칙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연역 논증을 통한 예측은 귀납 논증을 통한 예측보다 더 만족스럽기 때문이다.<sup>6)</sup> 설명을 이렇게 어떤 종류의 충분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는 생각은 햄펠처럼 설명을 어떤 종류의 논증으로 생각하는 이론들에게서 흔히 나타나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sup>7)</sup> 예를 들어 설명에 대한 충분성 접근은 인과에 대한 충분성 접근을 받아들이면서 설명에 대한 인과적 접근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sup>8)</sup>

설명에 대한 충분성 접근은 또한 형이상학적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접근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만들기(building)”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합성(composition), 실현(realization), 근거 부여(grounding) 등의 기준의 다양한 형이상학적 설명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K. 베넷의 경우 만들기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으로 필연화(necessitating)를 듣다.<sup>9)</sup> 여기에는 형이상학적 설명적 관계가 일종의 충분 관계여야 한다는 생각이 암묵적으로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새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D-N 모델과 I-S 모델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성격 규정이 주어질 수 있다. 개별적인 발생에 대한 모든 설명은 설명될 사건이 어떤 설명적 사실들에 의해서 예측될 수 있었다는 것을 결과로 갖는 어떤 논증이다. … 과학적 설명의 본질은 따라서 법칙적 예측 가능성(nomic expectability), 즉 법칙적 연결에 기초한 예측 가능성이 된다” (Salmon 1989, p. 57).

7) P. 키처의 통일 이론은 법칙적 예측 가능성 개념에 호소하지는 않지만 설명을 (이상적으로는 연역적) 논증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예이다(Kitcher 1989).

8) 고전적인 흄적 규칙성 인과 이론이나 D. 데이빗슨의 (엄밀 법칙 포섭적) 인과 이론은 인과에 대한 충분성 접근의 예라고 할 수 있다(Davidson 2001).

9) Bennett (2017), p. 32.

설명에 대한 충분성 접근이 갖는 고전적인 문제는 설명항이 피설명 항에 충분조건(또는 충분조건에 근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 설명에 충분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먼의 유명한 존스의 피임약 복용 사례는 충분성이 설명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남자인 존스가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은 그가 임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충분하지만 그의 피임약 복용을 통해서 그의 임신하지 않음을 설명할 수는 없다. 반대로 스크리븐의 척추 마비 사례는 충분성이 설명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떤 환자의 척추 마비를 치료되지 않은 매독으로 설명하는 것은 꽤나 만족스럽지만 치료되지 않은 매독 환자의 단지 25% 정도만이 척추마비를 겪으므로 전자는 후자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이런 문제들로부터 선우환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 예들과 그 밖의 무수히 많은 예들이 드러내는 것은, ‘때문에’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충분조건의 관념보다는 의존의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0)</sup>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선우환이 너무 성급한 논리전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의 사례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 충분성 접근이 결코 만족스런 설명 이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인지 충분성이 설명 이론 또는 ‘때문에’ 이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거나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의 관념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위의 사례들이 우리가 의존성에 주목하게 할 좋은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의 사례들은 모두 확률적, 또는 반사실적 의존성 개념에 호소할 경우 잘 대처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존스의 피임약 복용은 그의 임신하지 않을 확률을 높여주지 않으며, 존스가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임신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치료되지 않은 매독을 갖는 것은 척추마비의 확률을 높여주며, 그 환자가 치료되지 않은 매독을 갖지 않았다면 그는 척추마비를 겪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존성 접근 역시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 첫번째는 단순히 설명

---

10) 선우환 (2020), p. 57.

적 유관성 관계를 확률적 또는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다. 새먼의 초기 이론, 즉 S-R 모델이 확률적인 방식으로 의존성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적용한 사례라면 우드워드의 이론과 선우환의 이론은 반사실적 의존성으로 의존성을 이해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설명적 유관성 관계(또는 때문에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적용한 사례이다(Salmon 1971; Woodward 1984, 2003) 두번째 방식은 의존성 관계로 인과 개념을 분석하고 인과적 설명 이론을 그런 인과 개념과 결합시키는 것이다. 아마도 D. 루이스가 이런 이론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Lewis 1986).

의존성 접근은 우리가 설명 개념과 인과 개념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생각하면 할수록 불만족스러워진다. 왜냐하면 이 경우 인과에 대한 의존성 접근이 갖는 문제를 설명에 관한 의존성 접근이 계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잉 결정(overdetermination), 선취(preemption), 제압(trumping)과 같은 소위 백업 원인 상황 사례들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수가 동시에 꽃병을 향해 돌을 던졌다고 가정해 보자. 철수의 어깨가 조금 더 강해서 그가 던진 돌이 꽃병에 먼저 도달했고 그 결과 꽃병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영수가 던진 돌은 조금 늦게 도착해서 허공을 갈랐다고 하자. 이 (소위 ‘늦은 선취’ 사례의) 경우 꽃병이 깨지는 사건은 철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분명하지만 이 사건에 반사실적으로도 확률적으로도 의존하지 않는다. 철수가 돌을 던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꽃병은 영수가 던진 돌에 의해서 깨졌을 것이다. 그리고, 영수가 돌던지기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철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꽃병이 깨질 확률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인과적 설명 이론, 또는 어떤 식으로든 인과와 설명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의존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도 설명적 유관성 관계는 성립하는 많은 사례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의존성 인과 이론의 백업 원인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과 이론의 아이디어를 설명 이론에 도입할 좋은 이유가 된다. 이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에게 주목

을 받은 것이 **인과에 관한** 과정 연결 접근이다. 이 접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과 관계에서 핵심적인 것은 어떤 종류의 연속적인 물리적 과정을 통해서 두 사건이 연결된다는 것이다. 위의 선취 사례에서 철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은 꽃병이 깨지는 사건과 어떤 연속적인 진정한 물리적 과정, 즉 돌이 날아가는 과정에 의해서 연결되며 따라서 원인이 된다. 반면에 영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은 꽃병이 깨지는 사건과 이런 식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원인이 될 수 없다. 이제 새면과 같이 **설명에 관한** 과정 연결 접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과 이론을 인과적 설명 이론과 결합할 것을 추천한다(Salmon 1984). 그럴 경우 우리는 위의 사례에서 꽃병이 철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 때문에 깨진 것이라는 직관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sup>11)</sup>

그러나 **설명에 관한** 과정 연결 접근은 **인과에 관한** 과정 연결 접근 보다 훨씬 취약하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이중 방해(double prevention)’ 사례이다.<sup>12)</sup> 예를 들어 철수가 폭격기를 몰고 적진의 군사 목표를 폭격하기 위해서 출격했다고 하자. 영수는 철수가 모든 폭격기를 엄호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몰고 출격한다. 이들이 목표지점에 다가오자 적군의 전투기가 출격해서 철수가 모든 폭격기를 요격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영수는 적군의 전투기가 요격을 실행하기 전에 재빨리 적군의 전투기를 요격했으며 철수는 방해 받지 않고 목표지점에서 폭격을 성공시켰다. 이 사례에서 영수가 적군의 전투기를 요격하는 사건은 철수가 폭격을 성공시키는 사건과 물리적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철수의 폭격 성공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영수의 적절한 적군 전투기 요격 때문이라는 강한 설명적 직관을 갖는다. 그러나 N. 홀이 강조하듯이 이 상황에서 우리의 인과적 직관은 다소간 불분명하다.<sup>13)14)</sup>

11) 선우환은 이 직관의 존재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우환, 2020, p. 141) 필자는 선우환의 생각에 일부 동조하지만 이 문제는 이후에 보다 자세히 다뤄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12) Hall (2004), p. 241.

13) Ibid., p. 256.

필자는 지금까지 설명 이론에는 충분성 접근, 의존성 접근, 그리고 과정 연결 접근이라는 세가지의 구분되는 접근법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무시할 수 없는 매력과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을 이 설명 이론의 지형도 안에서 위치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이론의 성격을 규정할 것이다.

## 2.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과 두 개의 물음

선우환은 다음의 매우 단순한 (비대조적) 단순 '설명 이론'을 제시한다.<sup>15)</sup>

- P○|기 때문에 Q이다'가 참이다
- iff (i) P는 참이다.
- (ii) Q는 참이다.
- (iii) ~P였더라면 ~Q였을 것이다.

이 이론에서 핵심은 세번째 조건, 즉 그가 설명적 유관성 조건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 다른 것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은 그 다른 것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사실적 의존성 조건이다.<sup>16)</sup>

이 이론과 관련해서 필자는 두 가지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14) 선우환은 훌의 이 직관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선우환 2002, pp. 353-356). 그는 훌이 (과정 연결과 비슷한 개념인) 그의 산출(production)개념을 '편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선우환 2002, p. 360). 필자는 선우환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다. 어째든, 이중 부정 사례가 진정한 인과 사례라는 선우환의 견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중 방지 사례가 진정한 설명의 사례라는 직관이 이것이 진정한 인과의 사례라는 직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은, 적어도 필자에게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15) 선우환 (2002), p. 78.

16) 선우환은 설명적 유관성을 '때문에'와 바꿔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선우환, 2002, p. 29)

다. 우선, 선우환은 충분성 접근이나 과정 연결 접근이 아니라 의존성 접근을 채택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의존성 접근 가운데 확률적 의존성 접근이 아니라 반사실적 의존성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선우환의 반사실적 의존성은 단순 반사실적 의존성이다. 이는 선우환의 반사실적 의존성 개념을 우드워드의 반사실적 의존성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우드워드는 설명에 관한 반사실적 의존성 접근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철학자인데, 그의 반사실적 의존성은 인과적 개입(intervention) 하에서의 반사실적 의존성이다.<sup>17)</sup> 그에 반해서 선우환은 ‘인과적 개입’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지 않은 단순 반사실적 의존성 개념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가 이 이론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설명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이론으로서의 ‘설명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sup>18)</sup> 선우환 스스로 강조하듯이 ‘설명 문장’이라는 개념과 ‘때문에 문장’이라는 개념은 의미론적 내용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설명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일”이지만 “‘때문에 문장’은 다른 서술문에 비해서 특별히 수용자의 이해를 강조하는 의미론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sup>19)</sup> 이런 이유로 선우환은 자신이 ‘설명’과 ‘때문에’를 치환 가능하게 사용할 때 후자는 일상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자는 **전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즉, 선우환의 ‘설명 이론’은 설명적 이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결여한 이론이며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형태의 설명 이론이라고 볼 수 없는 이론이다. 필자는 설명적 이해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없는 이론을 설명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무시하고 ‘때문에’ 이론을 ‘설명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선우환이 많은 문제를 (아마

17) 우드워드의 개입 하의 반사실적 의존성 개념은 다음을 참고할 것.

(Woodward, 2003 Ch. 3, 5)

18)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자는 이 절의 첫 문장에서 ‘설명 이론’에 따옴표를 썼다.

19) 선우환 (2002), p. 221.

도 의도적이지 않게) 은폐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일상적 의미에서의 설명 이론과 선우환의 전문 용어로서의 ‘설명 이론’의 차이는, 앞으로 설명되겠지만, 선우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선우환의 이론을 ‘설명 이론’이라고 부르는 대신 “때문에” 이론이라고 부를 것이며 ‘설명 이론’은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설명 이론만을 의미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 선우환의 이론은 다음의 두 개의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 (1) 선우환의 이론은 단순 반사실적 의존성 접근을 채택한다.
- (2) 선우환의 이론은 설명 이론이 아니라 (설명적 이해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결여된) ‘때문에’ 이론이다.

이 두 가지 특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다.

- (3) 선우환의 이론은 충분성 접근과 과정 연결 접근을 지지하는 직관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 (4)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과 설명 이론의 관계는 무엇인가?

필자는 이 두 개의 질문이 개별적으로 대답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얹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필자는 선우환이 자신의 이론을 설명 이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명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3)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선우환의 이론이 갖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선우환은 (4)의 질문에 진지한 대답을 내어 놓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외면하는 것을 통해서 (3)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결국 필자는 선우환 교수가 (4)의 질문에 어떤 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가 (3)의 질문에 얼마나 만족스런 대답을 할 수 있는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분석은 다소간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것은 다음 절의 주제이다.

### 3. 단순 반사실적 의존성 '때문에' 이론과 설명 이론

선우환은 단지 그의 '때문에' 이론이 “설명 이론의 핵심적 과제(혹은 최소한 그중 하나)”<sup>20)</sup>라고 말할 뿐 어떤 의미에서 핵심적인지를 밀하고 있지는 않다. 필자는 이 절에서 이 질문에 천착하고자 하며, 선우환의 이론이 설명 이론에 핵심적이게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필자는 선우환의 이론이 설명 이론에 핵심적이라는 말은 매우 제한된 의미에서만 참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 3.1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은 설명 이론의 고갱이 이론이 될 수 있는가?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이 설명 이론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필자가 앞으로 ‘설명 이론의 고갱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이론이 되는 것이다. 설명이라는 것은 선우환도 잘 인지하고 있듯이 매우 다중적인 차원이 얹혀 있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만족스러운 설명의 성립에 화용론적 고려 또는 차원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우리는 화재의 발생을 누전의 발생을 통해서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대기 중 산소의 존재를 통해서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는 없다. 이 차이는 분명 정상적인 문맥 하에서 주변 대기 중 산소의 존재는 당연한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는 화용론적 요소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화용론적 고려가 설명 이론의 핵심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런 화용론적 특징은 설명적 이해의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제공되는 설명적 이해의 유용성과 같은 부차적인 특징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화재의 발생을 산소의 존재로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설명적 이해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또는 문맥에 적합한** 설명적 이해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만약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누전 상황을 실험하는 특수 실험실에서 산소가 유입되어 화재가 발생

---

20) 선우환 (2020), p. 293.

했다면 산소의 존재로 화재를 설명하는 것은 분명 누전을 통해서 화재를 설명하는 것보다 만족스런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화재의 발생을 조상신의 분노로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제공해 주는 이해가 유용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이해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sup>21)</sup> 이제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설명적 이해의 본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설명의 특징에 관한 완전한 이론을 설명 이론의 고갱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부분, 즉 이해의 유용성이나 적합성 등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설명의 특징에 관한 이론을 설명 이론의 주변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선우환의 단순 반사실적 의존성 이론은 바로 이런 설명 이론의 고갱이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설명 이론의 핵심이 되는 것인가? 선우환은 때문에 문장의 진리 조건과 때문에 문장의 적합성과 수용 가능성 조건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 이론의 고갱이와 주변부를 구분하려 하는 것인가?<sup>22)</sup>

필자는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이 이런 의미에서 설명의 고갱이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의 설명의 적합성과 수용 가능성 조건을 통해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러나 그의 '때문에' 이론과 충돌하는 많은 설명적 직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설명의 만족도에 관한 다양한 직관과 관련해서 두드러진다. 기본적으로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은 정도를 허용하지 않는 이론이다. 왜냐하면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라는 것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 정도를 허용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햄펠의 충분성 접근과 대조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앞서 지적된 바 있듯이 햄펠에게 있어서 설명적 이

21) 이해가 참을 전제한다고 생각하는 소위 사실주의자들(factivists)의 견해에 따르면 거짓 설명항을 갖는 설명은 자동적으로 이해를 산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사실주의를 전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설명이 어떤 종류의 진정한 이해를 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주의 논쟁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Grimm, Baumberger, and Ammon (2017), Part I.

22) 선우환의 때문에 문장의 적합성과 수용 가능성에 관한 이론은 그의 책 6장에서 제시된다.

해의 핵심은 법칙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 아이디어는 연역적 논증 또는 귀납적 논증에 기반한 모델을 통해서 정식화된다. 그리고 논증의 강도라는 것은 정도를 허용하며 따라서 햄펠에게서는 원칙적으로 설명의 만족도도 정도를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D-N 설명은 I-S 설명보다 만족스러우며 같은 I-S 설명의 경우 전제가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할수록 설명의 만족도는 커진다. 그리고 햄펠에게 있어서 이런 설명의 만족도의 차이는 화용론적인 고려나 인식론적인 고려와 같은 설명의 주변부적 차원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바로 설명적 이해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햄펠의 충분성 접근이 갖는 이런 특징은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과 잘 들어맞는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우리는 결정론적인 설명이 확률적 설명보다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 우리는 엄밀 법칙을 통한 설명이 비엄밀 (*ceteris paribus*) 법칙을 통한 설명보다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완전한 설명이 부분적인 설명보다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sup>23)</sup> 예를 들어 앞서 소개된 스크리븐의 척추 마비 사례를 다시 생각해 보자. 필자는 어떤 환자의 척추 마비를 그의 치료되지 않은 매독으로 설명하는 것은 **꽤나 만족스런**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설명은 **가장 만족스런** 설명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료되지 않은 매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척추 마비를 겪는 사람은 25%에 불과하지만 치료되지 않은 매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특정 유전자 A를 갖는 사람은 100% 척추 마비를 겪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그 환자가 A를 가졌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23) 이 주장은 다소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앞서 설명 되었듯이 항상 완전한 설명이 불완전한 설명보다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 화재를 누전과 산소의 존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단순히 누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설명에 가깝지만 오히려 설명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왜냐하면 문맥에 의해서 배제되어야 하는 설명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보다 완전한 설명이 보다 불완전한 설명 보다 선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맥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설명이,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그렇지 않은 설명보다 더 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환자의 척추 마비를 단순히 치료되지 않은 매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환자가 A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서 치료되지 않은 매독을 가졌다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더 만족스럽다.<sup>24)</sup> 그리고 이 만족도의 차이는 때문에 문장의 적합성과 수용 가능성에 관한 이론을 통해 설명되기는 어렵다. 양자의 설명이 모두 (선우환의 기준에 따라서도) 적합하고 수용 가능한 설명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sup>25)</sup>

24) 한 익명의 심사자는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누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보다 “누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보다 더 만족스런 설명인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A를 가진 상태에서 치료되지 않은 매독을 가졌기 때문에 척추 마비가 발생했다”가 “치료되지 않은 매독을 가졌기 때문에 척추 마비가 발생했다”보다 더 만족스런 설명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두 사례는 별별적이지 않다. 일상적인 문맥에서 산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설명의 만족도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다. 반면 일상적인 문맥에서 유전자 A를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 일상적인 문맥에서 산소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산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가하는 것은 설명의 질을 향상시킨다.

25) 선우환은 단순 설명의 적합성 조건과 수용 가능성 (필요) 조건으로 다음을 제시한다(선우환 020, 6장).

(ADC1) ‘P이기 때문에 Q’가 맥락 C에서 적합하려면, 그 맥락 C에서 ~Q가 Q보다 더 통상적인/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AC1) ‘P이기 때문에 Q’가 맥락 C에서 받아들일 만하려면, ~P가 성립했더라면 성립했을 ~Q인 가능성이 다른 ~Q 가능성들보다 그 맥락 C에서 두드러지게 더 비통상적인/비정상적인/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AC3) ‘P이기 때문에 Q’가 맥락 C에서 받아들일 만하려면, 그 맥락 C에서 ~P가 P보다 더 통상적인/정상적인/기대할 만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는 최소한 P가 ~P보다 더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건들을 척추 마비를 단순히 치료되지 않은 매독으로 설명하는 설명이 훌륭하게 만족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척추 마비를 겪는 것보다 건강한 것이 더 통상적이며, 치료되지 않은 매독을 갖지 않아서 척추 마비를 겪지 않는 상황은 딱히 비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치료되지 않은 매독을 갖지 않는 것은 그런 매독을 갖는 것보다 더 통상적인 것이다.

혹자는 아마도 D. 루이스를 따라 설명적으로 유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설명은 만족스러워진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완전한 설명이 왜 더 만족스러운지를 설명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26)</sup> 이제 선우환은 자신의 이론을, 루이스를 흉내 내어, 다소간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설명은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더 많은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설명은 더 만족스럽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척추 마비를 치료받지 않은 매독으로 설명하는 것이 꽤나 만족스러운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만족스러운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설명이 주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왜 이 환자에게 척추 마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완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설명이 주어진 후에도 여전히 “치료받지 않은 매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척추 마비를 갖지 않는데 왜 이 환자는 척추 마비를 가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에 반해서 그 환자의 척추 마비를 유전자 A를 가진 사람이 치료받지 않은 매독을 가졌다는 것으로 설명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차이는 충분성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하지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에 대한 정보의 양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런 시도는 결정론적 설명이 비결정론적 설명보다 더 만족스럽다는 직관을 설명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결정론적 설명이 비결정론적 설명보다 더 많은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X 입자에 Y선을 쪼였을 경우 그 입자가 60%의 (원초적) 확률로 봉괴한다고 가정해 보자. 또 Z 입자에 Y선을 쪼였을 경우 그 입자는 반드시 봉괴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어떤 X 입자가 봉괴한 것은 그것에 Y선을 쪼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비록 그 입자에 Y선을 쪼이지 않았다면 그 입자가 봉괴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Z 입자가 봉괴한 것은 그것에 Y선을 쪼였기 때-

---

26) Lewis (1986), p. 226.

문이라는 설명에 비해서 불만족스럽다. 그러나 이 차이는 반사실적 의존관계에 관한 정보의 양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차이는 설명항이 피설명항에 충분한가 아닌가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설명의 경우 X입자에 Y 선을 쪼였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붕괴하는 것은 아닌데 왜 그것은 붕괴했을까라는 의문을 남기지만 후자는 그런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며 그것이 이들의 설명적 만족도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27)</sup>

사실 스크리븐의 척추 마비 사례는 질병의 발생에 관한 설명이라는 특수한 맥락이 갖는 특징을 이용한 사례이다. 우리가 질병의 발생과 관련해서 주로 던지는 질문은 그 질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었는가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의존성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스크리븐의 사례에서 우리는 주어진 설명에 충분히 만족스러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매독을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척추 마비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맥락에서 우리는 종종 의존성보다는 충분성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어 철수가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건강을 놀랍도록 잘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왜 철수는 100세가 넘은 나이에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그가 담배를 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그렇게 만족스런 설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불만족은 “그가 담배를 피웠다면 그는 그 나이에 건강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가 참이라고 해도 해소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문맥에서 우리는 건강을 어

27) 한 익명의 심사자는 우리 세계가 비결정론적이고 따라서 어떠한 사건도 100% 확률로 함축되는 일이 사실상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성 조건을 설명 이론에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세계가 결정론적이나 아니면 비결정론적이나 필자의 주장과 무관하다. 만약 이 심사자의 주장대로 우리 세계가 결정론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세계라면 우리 세계는 이상적인(ideal) 설명이 불가능한 세계가 되는 것이지 비결정론적인 설명과 결정론적인 설명의 만족도의 차이가 없어지는 세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떻게 예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sup>28)</sup> 담배를 피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철수의 건강을 그가 담배를 피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스크리븐의 원래 예와 필자의 수정된 예가 보여주는 것은 어떤 특수한 문맥 하에서 우리는 종종 의존성 관계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도 충분성이 결여된 의존성은 이상적인 설명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명이 정도를 허용하는 개념이며 설명의 만족도에 충분성 조건이 주변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선우환의 논의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그는 어떤 경우에는 대조적 설명이 단순 설명보다 더 쉽다는 P. 립튼의 주장을 반박한다. 립튼은 자신이 현대극을 선호한다는 것이 지난밤 <캔디드>가 아니라 <점퍼스>를 보러 간 것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점퍼스>를 보러 간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선우환은 피터의 현대극 선호가 그가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퍼스>를 보러 가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점퍼스>를 보러 간 것은 잘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만약 피터가 현대극을 선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캔디드>를 보러 가느라 <점퍼스>를 보러 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sup>29)</sup> 필자는 이 반사실적 조건문의 참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피터가 현대극을 선호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피터가 고전극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피터는 어떤 선호도 없을 수 있다. 그리고 피터가 현대극을 선호하지 않는 최근접 가능 세계가 피터가 어떤 선호도 없는 가능 세계인 것이 그가 정반대의 취향을 갖는,

28) 필자의 설명 이론에 따르면 설명은 궁정적 레시피(산출법)와 부정적 레시피(예방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질병의 발생에 관한 설명에서는 부정적 레시피가 훨씬 중요한 맥락이 만들어지며 건강의 유지에 관한 설명에서는 궁정적 레시피가 훨씬 중요한 맥락이 만들어진다. 필자의 이론은 다음을 볼 것. J. Lee (draft).

29) 선우환 (2020), p. 186.

즉 고전극을 선호하는 가능 세계라는 것보다 더 그럴듯해 보인다. 그리고 피터가 어떤 선호도 없는 가능세계에서 그가 <캔디드>를 보려 간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없다.<sup>30)</sup> 그러나 설령 많은 것을 양보해서 이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조적 설명이 단순 설명보다 쉬울 수 있다는 립튼의 주장은 논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설령 (선우환이 주장하는 대로) 현대극에 대한 선호가 피터가 <점퍼스>를 보려 간 것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만족스런 설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현대극에 대한 선호 때문에 피터가 <캔디드>가 아니라 <점퍼스>를 보려 갔다는 것은 매우 만족스런 설명이다. 즉 이 경우 대조적 설명은 단순 설명보다 훨씬 더 만족스런 설명이다. 그리고 이 만족도에 대한 직관의 차이는 충분성 조건을 통해서 잘 설명될 수 있다. 피터가 현대극을 선호한다는 것은 피터가 연극을 보려 간다면 <캔디드>보다는 <점퍼스>를 선택한다는 것에 거의 충분하다. 이에 반해서 피터의 현대극에 대한 선호는 피터가 <점퍼스>를 보려 가는데 전혀 충분하지 않다. 철수가 짬뽕보다는 짜장면을 선호한다는 것은 그가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 데 전혀 충분하지 않다. 철수는 애초에 중국요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고 그 경우 그는 아예 중국요리를 먹으러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우환의 논증은 설명의 만족도를 고려하기 어렵게 만드는 '때문에' 이론을 전제하고 그 프레임 속에서 **설명적** 직관에 호소하는 립튼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sup>31)</sup> 이상의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설명의 만족도에는 적합성

30) 이 아이디어를 조금 확장하면 선우환은 피터의 현대극에 대한 선호로 그가 <캔디드>가 아니라 <점퍼스>를 보려 간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립턴과 선우환이 모두 받아들이는) 직관을 설명하는데 곤란을 겪는다. 그러나 충분성 조건이 설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경우 이런 곤란은 발생하지 않는다.

31) 선우환은 비결정론적인 상황에서의 확률적 설명의 가능성은 받아들이며 그는 이 경우 설명적 유관성 조건은, “~P였더라면 Q의 확률이 매우 낮았을 것이고 P였더라면 Q이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분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우환, 2020, p. 97) 그러나 우리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립튼의 사례가 비결정론적인 상황이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

이나 수용 가능성과 같은 설명 이론에 주변적인 화용론적 고려들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아마도 충분성 접근에 우호적인 직관에 의해 서 설명되어야 할 것 같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척추 마비 사례와 같은 종류의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충분성이 근본적으로 설명과 무관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충분성 접근 만으로는 만족스런 설명 이론을 만들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보기 에 선우환은 자신의 이론을 설명 이론으로 제시하지 않고 '때문에' 이론으로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통찰로부터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설명은 본질적으로 이해라는 개념과 연결되고 이해는 정도를 허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 이론에 관심을 갖는다면 설명의 정도 또는 만족도라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설명 이론의 고갱이 영역에 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 개념과는 달리 때문에 개념은 자체로는 딱히 정도 개념과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므로 '때문에' 이론에 집중할 경우 설명의 만족도에 대한 고려는 쉽게 망각된다. 물론 이것은 자체로는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이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그의 '때문에' 이론이 설명 이론의 고갱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때문에-문장의 진리 조건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의 본질을 연구하려는 시도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진 연구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이 설명 이론의 고갱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선우환은 인과 문장이나 때문에 문장이 (어떤 해석 하에서) 지시적으로 투명할 수 있지만 설명은 지시적으로 투명할 수 없다는 우드워드의 주장에 반대한다. 우드워드는 (김재권의 비판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초기 입장을 수정해서)

#### (5) 그 전기 단락이 그 화재를 야기했다.

가 참일 경우 그 전기 단락이 그해의 가장 주목할만한 사건이었다는 가정하에

(6) 그해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그 화재를 야기했다.

도 참이 될 것인데 전자는 진정한 설명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후자는 진정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전기 단락들은 화재를 야기한다”라는 일반화 문장에 포함되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응용력을 증가시켜 주는데 반해서 후자는 그런 응용력을 증가해주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선우환은 (6)과 같은 문장은 그것이 참인 한 설명일 수 있으며 (6)이 갖는 유용성의 결여는 설명 외적인 의미에서의 결여라고 생각한다.<sup>32)</sup>

그러나 우리가 '때문에' 이론의 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설명 이론의 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경우 선우환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다시 강조하지만 설명은 개념적으로 이해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해는 일반화와 응용력과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뉴튼의 법칙을 아는 것과 뉴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는 뉴튼의 법칙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통해서 뉴튼의 법칙을 알(know)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뉴튼의 법칙을 단순히 암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뉴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understand)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뉴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며 아직 일반적인 동의가 없는 문제로 보이지만 적어도 뉴튼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 뉴튼의 법칙을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해서 예측과 설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는 것은 꽤나 그럴듯하다. 개별적인 현상의 발생을 설명을 통해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현상의 발생을 일반적인 현상 발생의 패턴에 귀속시켜서 다른 유사한 현상들에도 유사한 설명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sup>33)</sup> 따라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인과 문장은 설령 그

32) 선우환 (2020), pp. 287-289.

33) 키처의 설명에 대한 통일 이론은 설명적 이해의 이런 측면을 명시화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키처에 따르면 개별 현상은 그 개별 현상을 최선의 통일적 추론 패턴 하에 귀속시키는 것을 통해서 설명된다.

것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설명 문장이 될 수는 없다. 김재권이 강조하듯이 그런 문장은 우리가 그것을 듣는다고 해도 어떤 종류의 “설명적 통찰(insight)이나 계동(illumination)”도 얻을 수 없다. “논점은 인과가 외연적인 관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설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sup>34)</sup> 필자는 여기서 때문에 문장이 지시적으로 투명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때문에 문장이 지시적으로 투명하다고 하더라도 설명 문장은 지시적으로 투명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우환의 때문에 문장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은, 그것이 지시적 투명성을 허용하는 한, 결코 설명 이론의 고갱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설명 이론으로** 제시된 우드워드의 이론을 자신의 ‘때문에’ 이론의 프레임 속에서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 3.2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은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최소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필자는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은 설명 이론의 고갱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했다. 그러면 선우환의 이론은 조금 덜 야심적인 방식으로 설명 이론에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 이때 우리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이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최소 조건 또는 핵심적인 필요조건을 제공해 준다는 아이디어이다.

이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단순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가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필요하다**는 생각에 위협이 되는 사례들을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위협적 사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왔던 것은 선취를 포함한 다양한 백업 원인 상황이다. 선우환은 선취 상황에서의 설명적 직관에 대해서 다소간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취한다. 그는 원인  $c_1$ 이 백업 원인  $c_2$ 를 선취하고  $e$ 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 $c_1$ 이 발생했기 때문에  $e$ 가 발생했다”가 참이라는 데에 분명한 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이어서 ““ $c_1$ 과  $c_2$  중 최소한

---

34) Kim (1999), p. 17.

하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e$ 가 발생했다'가 더 분명하게 참인 문장인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주장한다.<sup>35)</sup> 이를 통해 미루어 보면 그는 선취하는 원인이 설명적 힘을 갖는다는 직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직관이 아주 강하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다. 필자는 이 직관의 강도의 차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직관의 강도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우환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설명 이론이 아니라 '때문에' 이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는 직관의 강도의 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길을 가지 않는다. 그는 선취하는 원인과 선취된 원인의 선언만이 결과를 설명하는 힘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 이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리고 위에서 강조된 것처럼 설명은 정도를 허용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직관의 강도의 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c_1$ 이 발생했다는 것은  $e$ 를 **약하게** 설명하고  $c_1$ 과  $c_2$  중 최소한 하나가 발생했다는 것은  $e$ 를 **강하게** 설명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길은 최소한 우리의 직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때문에가 아니라 설명과 관련해서는) 선우환의 대안보다 선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 단순 반사실적 의존성이 설명적 유관성에 최소 조건이라는 것을 주장하기는 어렵게 된다.<sup>36)</sup>

선취하는 원인이 설명적 힘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직관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백업 인과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면 분명하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존스의 피임약 복용 사례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존스의 임신하지 않음을 그의 피임약 복용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존스가 남자라는 사실에 의해서

35) 선우환 (2020), p. 141.

36) 한 익명의 심사자는 여기서의 필자의 논의가 (3.1 에서의) 설명이 정도를 허용한다는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필자의 의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선취하는 원인이 설명적 힘을 갖는다는 직관이 무시될 수 있는 직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장은 설명의 정도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존스의 임신하지 않음은 그가 남자라는 사실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존스가 남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피임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임신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존스의 피임약 복용 사례는 전형적인 선취 사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그리고 많은 선취 사례에서 선취하는 원인은 설명적 힘을 갖는다. 이런 사례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바 있는 립튼의 연극 관람 사례를 생각해 보자. 피터가 다음과 같은 선호의 위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자.

- 최우선 고려사항: 현대극을 고전극보다 선호한다.
- 차순위 고려사항: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는 공연을 먼 곳에서 하는 공연보다 선호한다.

이제 <점퍼스>의 공연장이 <캔디드>의 공연장보다 피터의 집에서 더 가깝다고 가정해 보자. 이 상황에서 피터는 그의 최우선 고려사항을 고려해 <캔디드>가 아니라 <점퍼스>를 보러 갈 것이며 그가 <점퍼스>를 보러 간 것은 그의 현대극에 대한 선호로 잘 설명될 수 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공연장까지의 거리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었으며 따라서 공연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생각은 그의 행동에 설명적으로 유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피터가 현대극을 고전극보다 선호하지 않았다면 그는 <점퍼스>를 보러가지 않았을 것이다”는 거짓으로 보인다. 그가 현대극을 고전극보다 선호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그는 극의 종류와 관련해 특별한 선호가 없었을 것이고 차순위 고려사항에 의해서 집에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공연하는 <점퍼스>를 보러 갔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수정된 립튼의 예는 행위 설명과 관련해서 매우 친숙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김재권이 D. 데이빗슨의 행위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음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sup>37)</sup> 철수가 잡을 자다 깨서 우유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철수는 그

---

37) Kim (2011), pp. 196-7.

때 부엌 쪽에서 수상한 소리를 들었고 무슨 소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엌으로 갔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가 데이빗슨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철수가 부엌으로 간 것에 대한 설명은 그가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려고 하는 욕구가 그의 행위의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철수가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려는 욕구를 갖지 않았다면 그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는 참으로 보이지 않는다. 철수가 그런 욕구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우유를 마시러 부엌으로 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데이빗슨의 행위 설명 이론은 행위 설명 이론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가운데 하나이다. 이 이론이 호소하고 있는 직관은, 선우환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듯이, 단순하게 무시될 수 있는 직관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설명에 관한 과정 연결적 접근, 또는 인과적 접근에 우호적인 직관이 그렇게 쉽게 무시될 수 있는 직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의존성 접근은 우리가 설명 개념과 인과 개념을 가깝게 놓을수록 불만족스러워진다.

### 3.3.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은 일상적인 '때문에'에 대한 적절한 의미 분석이 될 수 있는가?

필자는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은 설명 이론의 고갱이가 될 수도 없고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최소 조건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의 '때문에' 이론은 어떤 점에서 설명 이론에 핵심적인 것이 되는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앞서 여기서는 그의 '때문에' 이론이 일상적인 "때문에"에 대한 적절한 의미 분석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앞서 지적된 바 있듯이 선우환은 자신이 “설명”은 전문 용어로 사용하지만 “때문에”는 일상어로 사용하며 자신의 이론은 일상어로서의 “때문에”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종종 반사실적 의존성이 없는 곳에서도 설명적 유관성은 성립될 수 있다는 위에서의 논증이 주어질 경우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P 때문에 Q인 것은 아니지만 P로 Q를 설명할 수

있다”와 같은 말을 “때문에”를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면서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더 확장될 수 있는데, 명백히 설명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가 성립하는 많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언적 설명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앞서 필자는 선취 상황에서 선취하는 원인( $c_1$ )과 선취되는 원인( $c_2$ )의 선언이 만족스런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선우환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그 상황에서의 결과(e)가  $c_1 \vee c_2$ 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만은 아니다. 우리가 일부 선언지에 결과와 설명적으로 무관한 사건을 집어 넣는다면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는 사라지지 않지만 설명적 힘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는 “누전이 발생했거나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누전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아니었다면 그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참이다. 그리고 이 설명 문장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은 이 문장이 이해를 산출시키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지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이해를 산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관성(irrelevancy)은 연언적 설명이건 선언적 설명이건 설명에 치명적이다.<sup>38)</sup> 설명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사실적 의존성 관

38) 연언적 설명에서 무관성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카이버그의 주문 걸린 소금 사례이다. 소금에 주문을 걸고 물에 넣으면 소금이 물에 녹지만 소금이 물에 녹는 것을 주문을 걸고 소금을 물에 넣었다는 것을 통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 무관한 연언지를 갖는 연언 설명의 사례는 단순 충분성 이론에 대해서 반례가 되지만 무관한 선언지를 갖는 선언적 설명의 사례는 단순 의존성 이론에 대해서 반례가 된다. 반대로 무관한 연언지의 문제는 의존성 개념을 설명에 도입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반면 무관한 선언지의 문제는 충분성 개념을 설명에 도입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누전이 발생했거나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화재의 발생에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선언문이 무관한 선언지의 참에 의해서 참이 될 경우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비인과적** 설명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우선, 선우환 자신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자기 설명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P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P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사소하게 참이다. 따라서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에 따르면 “P이기 때문에 P이다”도 사소하게 참이 된다.<sup>39)</sup> 이는 매우 반직관적이다. 이에 대한 선우환의 변호는 때문에 문장의 화용론적 적합성과 수용 가능성에 호소한다. 그는 이 문장이 거짓인 것이 아니라 단지 쓸모 없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한다.

(7) 케네디의 살해자가 케네디를 살해했다.

(7)은 ‘누가 케네디를 살해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적절한 대답이지만 여전히 참이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우환은

(8)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다.

역시 “왜 우주가 팽창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적절한 대답이지만 참이라고 주장한다.<sup>40)</sup>

필자가 보기에도 (7)과 (8)의 유비는 성립하지 않는다. 우선 우리는 (7)의 참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7)과 같은 말을 할 때 일상인들의 가장 자연스런 반응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 마나 한 말이라는 것일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7)이 왜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참이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케네디의 살인자가 오스왈드라고 가정해 보자. “누가 케네디를 살해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살해했다”는 적절하면서 참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문장의 주어 자리가 지시적으로 투명한 것은 분명하므로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따라서 (7)은 참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7)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의 참에 대해서도 좋은 설명을 갖는

39) 선우환 (2020), p. 224

40) 선우환 (2020), pp. 222-223.

다. 그러나 (8)의 참은 직관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라이프니츠의 법칙과 같은 독립적인 원리에 의해서 설명될 수도 없다. 일상인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8)과 같은 주장에 대해 갖는 직관은 하나 마나 한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틀린 말**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주가 왜 팽창하는가?”에 대한 참이면서 적절한 (때문에) 대답이 무엇이건간에 그 대답에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8)의 참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sup>41)</sup> 그렇다면 (8)의 (주장된) 참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선우환이 제시하는 유일한 설명처럼 보이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지 않았다면 우주는 팽창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명백하게 논점 선취적이다. 직관적으로도 (8)은 참이 아니며, 그 직관을 거슬러 (8)이 참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도 없으므로 (7)과 (8)사이에 유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선우환은 논리적 타당성과의 유비 역시 자신의 주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

P

—

P

와 같은 논증은 결론의 정당화와 관련해서 쓸모없는 논증이지만 여전히 타당하다.<sup>42)</sup> 왜냐하면, 타당성의 정의에 따라서,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사소하게)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유비 역시 (8)의 참을 보이는데 유용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논리학에서의 ‘타당성’이라는 개념은 일상어 ‘타당성’의 의미 분석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상어에서 타당성은 논증에 대해서만 사용될 뿐만 아니라 결론에 대해서도 사용된다. 예컨대 “너의 결론은 타당하다”와 같은 문장은 일

---

41) 예를 들어 우주 팽창의 원인이 빅뱅이 갖는 강력한 폭발력 때문이라고 가정해 보자. “빅뱅이 강력한 폭발력을 갖는 사건”은 “우주가 팽창하는 사건”과 공외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사용해 이 대답을 (8)로 변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42) 선우환 (2020), p. 224.

상어에서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일상어에서의 “타당성”은 논리학에서의 ‘좋은 논증’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일상적인 ‘타당성’의 의미 하에서 위의 동어 반복적 논증은 결코 ‘타당한’ 논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의 논증을 타당한 논증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여기서 사용되는 ‘타당성’이 논리학의 전문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논리학에서의 타당성은 전문 용어이며, 설령 일상어 “타당성”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개념 공학을 거쳐 기술적인 정의를 받는 개념이다. 위의 (쓸모 없는) 논증의 타당성은 이 타당성의 기술적 정의의 귀결일 뿐이다. 그러나 (8)의 직관적인 거짓을 이런 식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 여기서 “때문에”는 일상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8)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참이 아니라는 무시할 수 없는 직관을 갖고 있고 이 직관에 저항해야 할 이유는 논점 선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제시된 바 없다. 물론 필자가 여기서 주장한 것이 (8)이 거짓이라는 것이 논점 선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8)이 선우환의 이론에 반례가 되느냐는 (곧 결론이 나겠지만) 아직까지는 열린 문제이다.

선우환의 이론에 대한 보다 강력한 반례는 반사실적 의존성의 방향이 의존성의 방향과 반대인 곳에서 찾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 $P \vee Q$ ”라는 선언 문장과 그것의 참인 선언지  $P$ 를 비교해 보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P$ 가  $P \vee Q$ 를 근거 부여(ground)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후자의 참이 전자의 참에 의존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3)</sup> 그러나 전자는 후자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  $P \vee Q$ 가 거짓이었다면  $P$ 도 거짓 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선우환의 이론에 따를 경우 우리는 “ $P \vee Q$ 이기 때문에  $P$ 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는 반직관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일상어 “때문에”的 의미는 “소크라테스가 철학

43) 선우환은  $P$ 와  $Q$ 가 모두 참인 경우  $P \vee Q$ 의 참이  $P$ 의 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우환, 2020, p. 448) 필자는 선우환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  $Q$ 는 거짓이라고 전제할 것이다.

자인 것은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이거나 플라톤이 시인이기 때문이다”를 참으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 비슷한 현상이 존재 양화 문장과 그것의 사례 사이에도 발생한다. “소크라테스가 들창코인 것은 들창코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는 직관적으로 거짓이다. 그러나 “들창코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소크라테스는 들창코가 아니었을 것이다”는 명백히 참이다. 마지막으로 실현하는 속성은 실현되는 속성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 예를 들어 비환원적 물리주의로서의 역할 기능주의자들의 그림 하에서 고통과 그것의 실현자로서의 C-섬유 활성화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이 이론에 따를 경우 고통은 기능적으로 정의 가능하며 따라서 C-섬유 활성화에 고통은 논리적으로 수반하게 되며 고통은, 차머스의 용어를 빌리면, 환원적으로 설명 가능해지지만 환원은 성립하지 않는다(Chalmers 1996).<sup>44)</sup> 이 그림 하에서 우리는 고통이 C-섬유 활성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C-섬유 활성화가 고통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그림 하에서 ‘고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C-섬유 활성화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참이다. 왜냐하면 고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C-섬유 활성화가 발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고통이 발생하지 않은 최근접 세계에서 C-섬유 활성화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sup>45)</sup>

- 
- 44)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첨언하자면, 차머스 감각질(qualia)로 생각된 고통이 환원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정의된 고통은 (차머스의 입장에서도) 환원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 45) 여기서 선우환이 제안하는 논리적 필연성과 형이상학적 필연성의 구분(선우환 2020, pp. 393-394)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통이 기능적으로 정의될 경우 C-섬유화가 발생하면서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우환은 이 경우 쌍방적으로 때문에 관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선우환, 2020, p. 427, 각주 239). 그러나 이것은 때문에 관계가 대칭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을 포함할뿐더러 고통이 기능적으로 정의되면서도 다수 실현 가능해서 환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의 생각과는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필자는 이것이 때문에와 설명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설명 개념을 의존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느냐는 흥미로운 문제이지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Kim 1994; Ruben 1990; Skow 2016, Ch. 7; Strevens 2008 Sec. 5.7) .<sup>46)</sup> 그러나 이와 별개로 최소한 설명의 방향이 의존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것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동의한다. 적어도 의존성의 방향과 역행하는 설명의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철학자를 필자는 본적이 없다. 그렇다면 때문에와 설명의 밀접한 관계가 주어질 경우 때문에의 방향도 의존의 방향과 일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면 앞서 열린 문제로 남겨 두었던 (8)의 진리치의 문제에도 새로운 빛이 비추어질 수 있다. 비록 일부 (특히 중세) 형이상학자들 가운데 자기 원인 개념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날 자기 원인 또는 자기 의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설령 자기 의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8)의 상황이 자기 의존의 상황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8)이 직관적으로 거짓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단지 화용론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8)은 설명의 구조와 의존의 구조를 일치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명 문장으로서 참일 수 없다. 그리고 때문에와 설명의 밀접한 연결이 주어진다면 때문에 문장으로서의 (8)은 단지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직관이 그렇게 판결하듯이, 거짓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8)에서 사용된 “때문에”가 설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것은 (8)에서 사용된 “때문에”가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때문에”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은 일상어 “때문에”에 대한 의미 분석이 될 수 없다.

---

46) 예를 들어 B. 스코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 왔던 자연스런 생각은 의존과 왜-이유가 되기(being a reason why) 사이에 연결이 있다는 것이다. 즉, R은, Q가 R이라는 사실에 의존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왜 Q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Skow 2016, p. 179).

#### 4.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은 정도를 허용하고 설명의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성 접근에 우호적인 직관과 과정 연결 접근에 우호적인 직관을 어떤 식으로든 설명 이론의 고갱이에 반영해야 한다.

선우환의 이론은 정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 이론의 고갱이 이론이 될 수 없다.

선우환의 이론은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최소 조건을 제시하는 이론이 될 수도 없다.

선우환의 이론은 “때문에”에 대한 일상적 의미 분석이 될 수 없다. 필자는 선우환의 이론이 갖는 다양한 매력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의 이론은 보다 많은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다만 선우환이 자신의 이론을 설명 이론의 전통 속에서 정확하게 위치 지우지 못했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렇다면 그의 이론과 설명 이론의 진정한 관계는 무엇인가? 필자는 그의 이론의 설명 이론 내에서의 위치는 타당성 개념의 논리학에서의 위치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논증의 타당성은 좋은 논증을 위한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아니다. 논점 선취적 논증은 타당하지만 좋은 논증이 아니다. 반면에 강한 귀납적 논증들은 좋은 논증이지만 타당하지 않다. 타당성은 좋은 논증에 대한 개념적 분석이나 최소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도 아니다. 그리고 논리학에서의 타당성은 일상어 “타당성”的 개념 분석의 결과물도 아니다. 그러나 타당성은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평가 잣대 가운데 하나이다. 다만 좋은 논증이라는 것이 다양한 차원을 갖기 때문에 타당성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잣대로 평가될 수 없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반사실적 의존성은 설명의 만족도를 (주변부적이지 않게)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평가의 잣대이다. 우리가 선취 사례를 살펴보면서 확인했지만 반사실적 의존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그런 설명이 아주 만족스러운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좋은 논증과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설명도 매우 다중적인 현상이므로 단 하나의 잣대로 평가될 수는 없다. 충분성 접근, 의존성 접근, 과정 연결 접근은 각각 나름대로 어떤 종류의 평가의 잣대를 제공해 준다. 선우환의 '때문에' 이론은 “때문에”를 전문 용어로 이해할 때만 그럴듯 하며, 설명 이론에 핵심적이기는 하지만 선우환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약한 의미에서 그러하다.

### 참고문헌

- 선우환 (2002), 「설명의 반사실 조건문적 의존 모형」, 『철학연구』 59권, pp. 93-119.
- 선우환 (2020), 『때문에 - '때문에'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연구』, 아카넷.
- Bennett, K. (2017), *Making Things U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almers, D. J. (1996), *The Conscious Mind: In Search of a Fundamental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dson, D. (2001), *Mental Events*, in his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New York: Clarendon Press, pp. 207-28.
- Freeland, C. A. (1991), “Accidental Causes and Real Explanations”, in L. Judson (Ed.), *Aristotle's Physics: a Collection of Essays*, New York: Clarendon Press.
- Grimm, S. R., Baumberger, C., and Ammon, S. (Eds.), (2017), *Explaining Understanding - New Perspectives from Epistem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Routledge.
- Hall, E. J. (2004), “Two Concepts of Causation”, in Collins, J. D., Hall, E. J., and Paul, L. A. (eds.), *Causation and counterfactuals*, Cambridge: MIT Press.
- Hempel, C. G. and Oppenheim, P. (1948), “Studies in the Logic of Explanation”, *Philosophy of Science* 15(2): pp. 135-75.
- Kim, J. (1994), “Explanatory Knowledge and Metaphysical Dependence”, *Philosophical Issues* 5: pp. 51-69.
- \_\_\_\_\_ (1999), “Hempel, Explanation, Metaphysics”, *Philosophical Studies* 94(1-2): pp. 1-20. Retrieved from <Go to ISI>://000081337700001
- \_\_\_\_\_ (2011), *Philosophy of Mind* (3rd ed.), Routledge.
- Kitcher, P. (1989), “Explanatory Unification and the Causal Structure of the World”, in Kitcher, P. and Salmon, W. C.

- (eds.), *Scientific explan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ee, J. (draft), “Explanation and God’s Recipe”
- Lewis, D. (1986), “Causal Explanation”, in *Philosophical Papers Vol. 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uben, D. H. (1990), *Explaining Explanation*, Routledge.
- Salmon, W. C. (1971), “Statistical Explanation”, in Salmon, W. C., Jeffrey, R. C. and Greeno, J. G. (eds.), *Statistical Explanation & Statistical Relevance*,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_\_\_\_\_ (1984), *Scientific Explanation and the Causal Structure of the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89), *Four Decades of Scientific Explanat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Skow, B. (2016), *Reasons W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revens, M. (2008), *Depth - An Account of Scientific Explan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Woodward, J. (1984), “A Theory of Singular Causal Explanation”, *Erkenntnis* 21(3): pp. 231-62.
- \_\_\_\_\_ (2003), *Making Things Happen: A Theory of Causal Explan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논문 투고일	2021. 08. 12
심사 완료일	2021. 09. 11
게재 확정일	2021. 09. 11

## Simple Counterfactual Theory of 'Because' and a Theory of Explanation

Jaeho Lee

---

Recently, H. Sunwoo proposed a theory of "because" which might be called "the simple counterfactual dependence theory". In this paper, I argue that his theory of because cannot replace what is traditionally called "theory of explanation" and cannot provide a minimal requirement of explanatory relevance relation either.

**Keywords:** Explanation, Because, Hwan Sunwoo, Counterfactual Dependence